계시록 읽고 듣고 행하는 법

(계11:14~19)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계시록 읽고 듣고 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는 법'
오늘 이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므로 이제 셋째 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 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8장 13절에 넷째 나팔의 재앙까지 온 상태에서 '화, 화, 화로다' 앞으로 세 가지의 화가 더 임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장 12절에는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었고, 두 번째 화는 여섯 째,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오늘 가만 보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화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화라고 할 수 있는 재앙들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 왕권을 회복하심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왕권을 회복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 받을 자들과 상 받을 자들을 구분해내시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부어지는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나 혹은 일어나는 동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 즉 교회와 적그리스도 간의 싸움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계시록 11장이면 전체 계시록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특별한 순서를 가져봅니다.
11장까지 전개되어온 계시록의 내용을 아주 쉽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마지막까지 전개될 후반부가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전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도요한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와서 알겠습니다마는, 읽는 것이 쉬워요? 듣는 게 쉽습니까?
읽는다는 건 그냥 글자를 따라서 소리를 낸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읽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읽는 소리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캐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킨다는 것도, 지금까지 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언뜻 듣기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뭘 봤다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마음에서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도대체 이 계시록을 다 끝낸다고 할지언정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중간 지점에서 그러한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한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길, 그 틀 안에 이제까지의 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잠깐 정리하면서 이해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한 컷으로 요한계시록을 기억할 수는 없을까?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 하나의 컷, 한 페이지로 그려서 넣을 수

있기 위한 틀을 바로 3층 우주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3층 우주관 안에 계시록의 내용을 담아내면 훨씬 더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얻지 못할지라도, 혹시 또 잘못된 이해를 얘기할지라도, 그 잘못된 이해의 해가 가장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3층 우주관 안에 계시록의 내용을 담아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과오 없이 진행되면서 계시록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3층 우주관이 뭐지요?
맨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들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차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도 과거를 향해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내 몸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에 가있을 수도 있고, 저~기 호주에 가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차원이자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3층의 우주관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실존은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이 있어요.
이 3층 구조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보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이며, 이 3층 구조 안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내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를 3층 구조 안에서 이해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한 움큼에 집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인 큰 윤곽을.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는 땅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이 3층의 구조 안에 산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70억 인류 한사람 한사람 각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3층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권세를 잡았는가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마음속에는 도저히 하나님 말고는 채워질 수 없는 심연(深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연으로 인해서 사람은 빨아들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작용하고,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권세를 잡았나 하면, 마음의 심연, 파스칼이 얘기한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심연을 채우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흡입구의 방향을, 활을 쏠 때 과녁의 방향을 아담으로부터 이 땅으로 향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의 핵심은 뭡니까?
결코 우리 마음 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배의 내용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거짓 경배하는 것, 잘못되게 믿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 이게 바로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한다는 게 뭡니까?
육체가 마음이 원할 대상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라든지 훌륭한 예술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육체가 있음으로써 육체가 레이더가 돼가지고 찾을 수 있는 대상들 아닙니까?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연결이 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산 겁니다.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70억 인구 전체가 예술, 정치, 문학, 교육, 과학, 모든 분야에서 하늘의 하나

님을 마음으로 먼저 모셔 들이기 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를 마음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십자가가 바로 세상 바깥 끝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레이더로 감지할 수 있는 대상 세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중에 하늘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큰 틀 안에서 계시록을 이해하면,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재림에 대한 기대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는 3층 구조 안에서 육체 안에 머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계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던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면서, 마음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 이게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내용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2장과 3장에서는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가름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결국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이 땅을 헤매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이 사실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24 천사와 네 생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3층 구조 안에서 땅에 살고 마음이 육체 안에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하늘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좌가 펼쳐져 있는 천국은 그냥 종교로서 구색을 갖추느라고 천국 운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호와 같은 이 땅의 차원과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천국은 지금 위에 있는 것이었고, 4천 년 뒤의 우리에게도 지금 천국은 위에 있고, 2천 년 후까지 살 사람들에게도 천국은 위에 있고 지금의 천국인 것입니다, 시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5장에서 6장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곱 인이었습니다.
어린양이 나타나서 일곱 인을 떼는데, 이 일곱 인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중의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데, 그 사탄의 지배체제가 허물어지고 그 지배체제에서 벗어난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가 일곱 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인 뒤에 이어서 십사만 사천 명이 나오고 환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되면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십사만 사천 명, 예정 속에서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어떤 자들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흰옷을 입은 십사만 사천 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지배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연합을 해서 유착이 돼가지고, 육체가 레이더로 잡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한 겁니다.
그 반응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빈 마음을 세상 것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번뿐인 이 인생에서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럴듯한 성취를 이룸으로써 인생을 보람되게 해봐야지, 하는 욕구가 마귀가 지배하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재앙입니까?
사탄의 지배체제에 내린 재앙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주님께서 검을 주셨다, 아비와 어미가 싸우게 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지배체제인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체질이 돼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체제에 내리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힘이 드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고통이 사라지고 십자가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지배체제를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십사만 사천 명에 속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십사만 사천 명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종잇장이 말리듯이 깡그리 다 없어져버린 사람들, 기쁨의 근거로서의 세상, 인간끼리의 화평을 통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세상, 그리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명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흰옷 입은 자들이 된다.
벗어나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의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여섯 인이 얘기되었고, 그 다음 일곱째 인이 나타나면서 일곱 나팔이 등장하잖아요?

일곱 나팔은 뭐였습니까?
공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육체와 붙어있습니다.
땅에 있는 육체와 붙어있는 것은 육체가 이 세상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의 인은 사탄의 지배체제에 주어진 재앙이라면, 이제 일곱 나팔은 마음을 붙이고 있는 대상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서 이 땅을 치십니다.
일곱 인은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데에 중점이 있고, 지금까지 읽은 여섯 나팔은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음과 붙어있는 육체를 떼 내려 하는 것이 일곱 나팔로 작용을 한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빼내려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에 붙어서 마음을 묶고 있는 이 땅을 공격하시는 것이죠.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기억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육체가 속한 이 땅, 자연환경, 그리고 이 육체가 만나는 것 중에서 생명적인 존재들, 나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주는 것들, 그것이 엄마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아빠에게는 사업일 수 있고, 정치가에게는 권력일 수가 있고, 연예인들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들, 이걸 다 없애버린다.
이게 유브라데 강에 억제되었던 이만 만의 마병대 얘기였지요.
그리고 황충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이 기쁨이 될 줄 알고 행복이 될 줄 알고 살았었는데,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도 아무런 기쁨과 평강과 성취로 느껴지지 않게끔, 마음에서 이 세상 가치들의 힘을 갉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러니 허무해지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도, 일곱째 나팔은 계속 이 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 땅을 칠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그러면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삶은 육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이 세상 것들을 쳐버렸습니다, 땅을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건 우리 마음이 쫓아갈 것이 아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들을 마음이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면 어떤 모습이 됐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흰 구름이 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아서 땅과 바다를 딛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천사, 뿐만 아니라 일곱 우레를 동반하고 있는 천사, 하나님의 음성을 동반하고 있는 천사,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회개했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움직였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일곱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앙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두 증인들이 뭐라고 했지요?
증인은 둘일 때 그 증거 하는 증거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번제단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9장의 상번제에 관한 규례에서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고 내 음성을 들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힘센 천사의 모습과 일곱 우레를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십자가생활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소와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 다시 말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서 땅을 치는 겁니다.
일곱 나팔의 연장인 거예요.
일곱 나팔의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땅을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앞의 일곱 나팔 전체의 내용은 마음을 묶고 있는 육체와 연결된 이 땅의 것들을 쳤어요,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의 두 증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말씀으로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오게 될까요?
일곱 대접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기 위해 있어야 될 전쟁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공중 세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의 위치가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공중에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땅으로 계속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공중의 차원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그 지배체제에서 빼내려고 했던 것이 일곱 인이고, 우리 마음을 육체가 이 땅에 연결돼 묶여있으니까 땅을 치신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보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인과 재앙의 이면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3층 구조를 딱 생각하고 원래 주님께서 복음을 사건을 완성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가를 연상하고 나면, 이 계시록의 진행되는 내용들이 세세한 것에서는 정확한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오 없이 내 것이 되도록 읽고 듣고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떡하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읽기에 듣기에 지키기에 한없이 난해하기만 보이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3층 우주관을 머리에 넣음으로써 쉽게 이해되어 언제 어디서나 이 계시록의 지향하는 내용들이 내 것이 되고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심으로 복된 자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